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0년 4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다음 행사들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8월 2일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과 특별한 축일 기도 모임들에 관하여

“나는 너희에게 이 점을 말해주러 왔다: 나는 앞으로 한동안 이 성지에서의 대중 (발현) 기도 모임의 날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장려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너희가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며 이곳에 오고 싶은 이들은 성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버스 여러 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승용차 한 대당 네 명까지는 성지에 올 수 있다. 공식적인 기도 모임은 없을 것이지만 각각의 소규모 단체는 그들끼리 스스로 기도하면 된다.”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너희는 과거에 우리가 큰 규모로 성지에 모였던 날들을 계속 기념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된 성심의 축일 (2020년 6월 21일), 하느님 아버지의 축일 (나의 축일, 2020년 8월 2일),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 (10월 7일) 등등이다.”

“나는 너희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느님 아버지 - 2020년 4월 24일)

■ **2020년 4월 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항상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꾸준히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십자가의 길이와 폭이 매우 길고 넓을 때도 종종 있지만, 매우 짧은 경우도 많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대로 각 순간을 받아들여라. 나는 너희의 시련의 모든 세부 사항뿐 아니라 너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측면들까지도 알고 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은총을 받을지, 또 너희가 얼마나 많이 승리할지도 안다.”

“너희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신뢰해야만 한다. 너희가 신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지상과 연옥에서 해방된다.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총이자 승리다.”

“모든 십자가는 모든 은총이 그렇듯 너희 하나하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선택된 것이다. 각각의 현 순간은 너희 자신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의 특별한 순간인 것이다. 신뢰로 각 순간을 옷 입혀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0년 4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향한 영혼의 여정의 가장 완벽한 순서는 첫째, 거룩한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덕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마음속 거룩한 사랑이 더 깊을수록 모든 덕도 더 깊어진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기본 요소 위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신뢰다. 그리고 신뢰 위에는 내맡김이 세워진다. 신뢰 가득한 내맡김, 이 두 가지는 영혼이 현 순간 내 거룩한 뜻을 받아들이고 내 뜻 안에서 살도록 돕는다.”

“가장 거룩한 영혼에게는 이 길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치 않다. 그는 그저 이 길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길을 간다. 나에게 대한 그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그는 내 지시나 도로 표지판이 없어도 거룩함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연스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마음은 항상 나의 성령에 열려 있으며, 내 계획은 그 영혼 안에서 완성된다. 이런 영혼에게는 내 뜻에 내맡기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의 길이 된다.”

“기도는 신뢰 가득한 내맡김으로 가는 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1:13-16):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이제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 2020년 4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뜻에 내맡겼다면 너희 마음속에는 평화가 존재할 것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내 뜻에 순응하는 마음, 심지어 내 뜻에 일치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사탄이 하는 일은 너희 마음속의 평화를 파괴함으로써 너희가 걱정과 신뢰 부족과 두려움의 포로

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묶인 사람은 마음이 평화 속에 머무르는 사람처럼 나를 잘 섬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전염병이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를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사실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나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의) 매우 심각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칙을 지키면서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너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대기하고 내 성심으로 피신해 그 안에 머물러라. 그런 다음 너희 위에 내리는 내 축복을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3:8):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 주소서.

■ 2020년 4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다시 한 번,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과 죽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렇기에 현 순간은 너희의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한다. 최상의 준비는 마치 너희의 영원한 심판의 순간이 온 것처럼 너희 자신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너희는 나와 너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 순간은 결코 다시는 너희에게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라.”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할수록 나에게 대한 너희의 신뢰도 깊어진다. 너희의 신뢰가 더 깊을수록 너희의 기도도 더 강해진다. 그러나 너희의 기도의 힘에 대해 자만함으로써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런 영적 교만은 너희 마음과 내 성심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한다. 너희의 기도가 응답 받을 때, 형세를 바꾼 것은 바로 나의 권능과 나의 통치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하라. 겸손한 자세로 내 뜻에 내맡기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20년 4월 5일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신자들의 교회(The Remnant Church)’는 신앙의 진리들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교회는) 절대 사람들의 의견이나 좀 더 대중적인 생각들에 근거해 이 진리들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신앙의 교리는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편리를 위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견잡을 수 없이 많은 배교와 이단을 만들어내며 폭발할 때를 기다리는 지뢰밭과 같다.”

“직함이나 지위에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탄의 공격은 경계를 모른다. 가장 큰 공격은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닌 이들을 향한다. 신앙의 전통을 받아들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20년 4월 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 세기는 중대한 결정의 시대다. 교회는 분열되었고, 남은 신자들은 전통의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대신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리를 재정의하려고 애쓴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들로 이루어진 인기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신자들의 교회는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나는 갈수록 찾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힘들게 되어가고 있는 진리의 전통을 지지하며 말하기 위해 왔다. 만약 너희가 같은 지도부 아래 두 개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는 혼란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체를 나타내는 군복을 입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편이 나뉘어지는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한 진영의 무기는 대중 매체이고 반대편 진영의 무기는 전통이다. 너희의 선택이 진리를 극대화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차지하게 될 너희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0년 4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마비되는 상황이 수주, 수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때 내가 자비로이 ‘베푸는 은혜(Provision)’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나는 기도의 필요성과, 너희 삶의 모든 양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에 너희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이 역경을 허락하고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탄의 함정인 독선에 빠지지 마라. 너희가 받는 모든 은총은 나의 너그러움으로 인한 것이다. 세상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이때 나는 너희가 마음으로 서로 영적으로 일치하도록 요청한다. 이 사악한 바이러스가 예정보다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여라. 너희가 부득이하게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을 잘 활용하여라. 기도를 통해 너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라.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나를 신뢰하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라. 신앙의 수호자인 마리아의 보호를 구하여라. 이 격리의 순간들은 결코 다시는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현 순간들을 잘 활용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2020년 4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은 하나된 성심의 축일에 계획되었던 우리의 기도 모임 행사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 행사를 내년까지 연기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 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경우에는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잘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또한 8월 2일 기도 모임 행사에 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2020년 4월 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승리에 계속 집중하였다. 이 승리가 인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기에 나는 내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고통도 결코 나의 수난에 비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삶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례적이고 전례 없는 십자가들이 발생할 때 너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아버지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보살피고 계

신다. 어떤 일도 독선이나 영적 교만의 기회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독선이나 영적 교만은 사탄의 함정이며, 선을 악으로 바꾸는 수단이다.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영감을 주어 너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희의 필요가 충족되게 할 것이다. 사실, 십자가 위에서 내 죽음이 그렇게나 가슴 저미는 죽음이 될 줄 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

“내 십자가보다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나누는 승리를 목상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3:46):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 2020년 4월 9일 -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의 시기인 이때 세상은 서로 힘을 합해 치명적인 질병과 싸우고 있다. 세상이 내 아들의 (성체 안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일치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이 거룩한 성체라는 선물은 수세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선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쇠퇴되어 이 선물이 소중히 여겨지지도, 있는 그대로 존중되지도 않는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거룩한 사제직이 내 아들의 성체 안의 실재적 현존에 기초하여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극소수의 사제들만이 이 진리를 자신의 사제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것은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사탄의 출입 통로다.”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내 아들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일치한다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대량 살상 무기는 전혀 필요치 않게 될 것이며, 모든 인간 생명은 잉태의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중될 것이다. 또한 악의 결과인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온 인류가 자신의 삶의 주된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기 바란다. 거룩한 성체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하도록 너희를 이끌게 하여라. 오직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희는 세상의 마음이 바뀌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2:19):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020년 4월 9일 -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용서는 너희 영혼의 원기 회복제다. 너희가 용서할 때, 너희 마음은 매우 쉽게 나의 부성적 성심에 일치하게 된다. 너희 과거의 모든 이를 용서하여라. 특히,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너희 자신을 용서하여라. 내 성심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 2020년 4월 10일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의 완벽한 모범이었다. 죽음은 체력이나 겉모습, 명예나 사회적 위신, 재력 등 모든 인간의 가치를 없앤다. 사랑과 인내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내 맡길 때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세계에서 힘이 된다. 내 수난은 모든 이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따라야 할 모범이었다. 나는 분노가 아니라 인내의 정신으로 내 독립을 상실하였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었다.”

“나는 내 고통의 어떤 부분이나 아픔도 생각 하나로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인내하였다.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오늘날 용기를 내어 인내하여라. 너희가 내 십자가의 어떤 부분을 겪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희의 뉘은 내 뉘이기도 하다.”

“너희의 노력으로,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내게 데려오너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4:25-26):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 2020년 4월 10일 -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마지막 숨을 내릴 때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거룩한 사랑과, 온갖 논란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중상 비방에 직면해 인내하게 될 이 선교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 2020년 4월 12일 - 주님 부활 대축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자녀들아, 오늘은 죄와 죽음에 대한 나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무엇을 이루어 내지 못

했는지를 살피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이미 이루어 냈는지를 살펴보아라. 그런 다음 이 승리의 날을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념하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알렐루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작은 승리들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보다 더 큰 승리들도 함께 일구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의 회심, 그리스도적 사고방식에 깊이 잠긴 세상, 아무런 박해 없이 모든 이가 그리스도적 목표들을 받아들이는 기쁨 등 이 미래의 승리들의 가능성을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이 모든 목표들이 마치 오늘날의 승리인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라. 그런 다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뻐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4:45-46):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 2020년 4월 13일 - 부활 팔일 축제 월요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을 때 모든 진리가 나와 함께 하였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진리가 이제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나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가져다 주고,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통치하게 허락하도록 영혼들을 고무시키는 것이었다. 이 진리의 선교사업은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언제나 바로 이 진리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2020년 4월 14일 - 부활 팔일 축제 화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류의 마음에 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왔다. 각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자신의 실수에서 유익을 얻고, 뉘우치고, 개선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들도 있다. 이들은 더 큰 선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 이런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들은 영적으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지 않는다.”

“각 영혼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따라 심판 받는다. 영혼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은 바로 이 격언에 대한 대단한 시험이다. 각 영혼은 이번 위기나 다른 모든 위기중에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인간의 노력에만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서 더 멀어져갈 수도 있다. 이 사실에서 배우고, 나의 ‘베푸는 은혜’를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1:10-13):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 2020년 4월 15일 - 부활 팔일 축제 수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는 절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내 아들을 본받는다. 내 아들은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내 아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또한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아들은 결코 마음속에 앙심을 품지 않았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조차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내게 애원하였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이들 또한 이보다 덜해서는 안된다.”

“서로에게 화가 나게 만드는 이유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소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영혼이 뿌루통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이다.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사랑 가득한 용서의 화신이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한을 키움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더럽힐 권리가 없다.”

“내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형제를 용서한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7: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1:22):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 2020년 4월 16일 - 부활 팔일 축제 목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는 전례가 없는 매우 힘든 시대다. 너희의 적은 수많은 이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고 있다. 정부가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을 경우 죽음이 그 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날 전 세계에 새로운 질병들이 도래할 것임을 너희에게 경고했었다. 지금, 그 중 하나가 발생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이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한 훌륭한 목적 아래 단결하였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 또한 돕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고 있다. 신중한 지혜가 오늘날의 풍조가 되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다가오는 8월에 계획했던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받으러 이 성지에 오라고 수많은 군중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 특별한 모임에 너희 모두를 안전하게 불러 모을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를 청한다. 누구나 아주 작은 소규모 그룹으로 이 성지에 와서 기도할 수는 있다. 이 악이 종식되도록 집에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너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순종하며 협력할수록 이 악이 더 빨리 종식될 것이며, 내가 더 빨리 세 가지 축복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큰 부성적 사랑으로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말해준다. 너희의 순종으로 내 사랑에 보답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2 요한 6):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0년 4월 16일 - 부활 팔일 축제 목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나는 나의 세 가지 축복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내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어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경외심보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좀 더 적당한 시기에 이 특별한 행

사를 위해 모일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이 기도 성지에서 각자 많은 은총들을 체험할 수 있다.”

■ 2020년 4월 17일 - 부활 팔일 축제 금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심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의 이 시련들을 참을성 있게 견뎌라. 이 모든 일과 상황 들은 지나간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희망이란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전쟁의 시련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 승리를 체험할 수는 없다.”

“우리의 특별 기도 모임 행사들의 상실은 너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에 전념한다면 완화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개인 경당으로 만들어 하루에도 자주 그곳으로 들어가 (기도하여라).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 기도 성지에도 소규모 단위로 순례를 오너라. 모든 은총이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며, 아무도 이 은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못한다. 지금보다는 덜 감시 받는 가운데 우리의 특별 기도 모임 행사들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를 가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인내할거라 믿는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16):

무슨 일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2020년 4월 18일 - 부활 팔일 축제 토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련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영혼들을 내게 더 가까이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영혼들이 나에게 대한 그들의 의존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어려울 때 아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영혼들이 나에게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겪는 십자가의 어떤 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

“너희의 가장 사소한 걱정이나 아픔은 다 나의 염려가 된다. 나는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성심 안에 품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내 부성적 사랑을 나에게 두 배로 돌려주기를 바란다. 너희의 시련들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워라. 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 삶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데에는 사랑 가득한 신뢰가 요구된다. 너희가 너희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

로 나에게 의지하면, 나는 슬픔에서 기쁨을, 또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6:5-11):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저의 차지로 좋은 땅 위에 측량줄 내려지니 저의 재산에 제 마음 흐뭇합니다.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당신께서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는 구령을 아니 보게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면전에서 넘치는 기쁨을,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을 누리리이다.

■ 2020년 4월 19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자비의 왕으로서 너희에게 왔다. 나는 모든 악과 모든 거짓에 맞서기 위해 내 자비를 세상의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기를 원한다. 내 성심은 너희의 자비의 피신처다. 모든 혼란 속에서 이 피신처로 탈출하여라. 너희에게 선과 악의 차이를 밝혀주는 것은 바로 내 자비다. 내 자비의 은총을 통해 너희는 의로움의 길을 따라 인도된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거룩한 사랑 곧, 구원의 길로 부른다. 이 부름은 내 자비의 활동이다. 바로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응답을 통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서로 일치하고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자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은총으로 가득 찬 이 과제를 제시한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여라. 오직 그렇게 할 때만 너희는 원수가 너희에게 손을 뻗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신성한 뜻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내 자비가 너희를 감싸고 에워쌀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유다 17-2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 2020년 4월 20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비를 기념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자비도 기념해야 한다. 인류는 바로 내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내 자비로운 사랑을 떠나서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없다.”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최근의 이 세계적인 유행병을 한 번 생각해 보아라. 세속의 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위에서 오는 지혜야말로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떤 해결책이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다.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승리의 은총은 바로 내 자비로운 성심 안에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적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2020년 4월 21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숨겨진 계획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사악한 계획들을 대담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메시지들은 세상이 지금 이 순간에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다. 특정한 날짜를 예측하는 다른 메시지는 신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이며, 사탄이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 2020년 4월 21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다 함께 전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의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십자가가 지속되는 기간이다. 지금이야말로 현 순간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너희가 이때까지 겪어온 일들을 돌아보거나

이 십자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를 살피지 마라.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 순간, 특히 대부분의 경우 정말 예기치 않게 작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지는) 나의 ‘베푸는 은혜’ 안에서 안전을 찾아라. 나의 은총은 십자가의 길이나 깊이에 상관 없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라. 좌절감이 만연한 가운데 용기의 표징이 되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전능을 믿고 내가 상황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여라. 그것이 바로 신뢰다. 너희가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용감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9-10):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0년 4월 2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상황은 언제나 내 은총의 힘과 내 신성한 뜻의 활동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랑에서 우려나온 기도를 통해 내 뜻에 호소하여라. 기도는 먼저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생기를 잃게 된다. 나는 사건들의 방향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 열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기도를 기다린다.”

“이 선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와서 은총을 느끼고 기도하라고 내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초대하는 기도 성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서 내게 가까이 머물러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또 지침을 줄 것이다. 현재 이 격리 상태 전의 좀 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너희의 노력은 내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한다. 너희가 느끼는 답답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현 상황과 모든 십자가가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게 하여라. 그것이 십자가가 곧 승리가 되고 사탄의 패배가 되는 방법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5:4-5):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 2020년 4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

니다. “매 현 순간은 국가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다. 죄를 피하기 위한 너희의 결정은 의로움에 대한 너희 자신의 응답을 강화시키며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타협이란 타협은 무조건 피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이웃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즘 시대에는 사소한 결정이란 없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몸과 영혼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너희를 육체적으로 위협하는 반면, 오직 너희 자신만을 만족시키려 하는 욕망은 너희의 영혼을 위협하므로 또한 세상의 마음도 위협한다. (몸이든 영혼이든) 이 두 가지 유형의 사상자 모두 너희 나라를 약화시킨다.”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온갖 분쟁으로 가득 찬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영혼은 저마다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최대한 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진리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너희는 현재 바이러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너희의 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의 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자에게 맞서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1-2, 7-8):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속이는 영들과 마귀들의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2020년 4월 2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굳셈(용기, fortitude)은 너희가 인내하는 데 필요한 내적 힘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희 마음의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낙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셈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너희가 하나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거두어 그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면 또다른 십자가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굳셈은 너희가 매 현 순간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힘을 너희에게 준다.”

“이제 곧 사람들은 좀 더 개방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할 것인데, 이 행동이 이때까지 격리 조치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기도 안에서 일치해야만 한다. 더 많은 죽음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의 완화가 오염을 막기 위한 싸움에 부주의함을 불러들여서는 안된다. 적의 바이러스는 여전히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라. 너희의 일상 생활은 결코 이전과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

달는 데에는 지혜가 요구된다. 굳셈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총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2):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누는다면,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6-7):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0년 4월 2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점을 말해주려 왔다: 나는 앞으로 한동안 이 성지에서의 대중 (발현) 기도 모임의 날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장려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너희가 존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며 이곳에 오고 싶은 이들은 성지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버스 여러 대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 승용차 한 대당 네 명까지는 성지에 올 수 있다. 공식적인 기도 모임은 없을 것이지만 각각의 소규모 단체는 그들끼리 스스로 기도하면 된다.”

“모든 기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너희는 과거에 우리가 큰 규모로 성지에 모였던 날들을 계속 기념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된 성심의 축일 (2020년 6월 21일), 하느님 아버지의 축일 (나의 축일, 2020년 8월 2일), 거룩한 목주기도의 축일 (10월 7일) 등등이다.”

“나는 너희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 2020년 4월 2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례가 없는 시대다. 그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건강과 안녕에 이렇게나 큰 위협이 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 너희는 이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밖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사교 활동 등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누렸던 특권들을 좀 더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점진적 승리가 될 것이다. (봉쇄되었던) 사회를 다시 여는 데에는 주의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안녕뿐 아니라 영적인 안녕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는 너희가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두 팔과 내 성심은 너희에게 열려 있다. 나

는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너희가 일치된 기도에 마음을 열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너희를 인도해 줄 천상의 지혜를 구하라. 그저 너희가 하고 싶은 것만 신뢰하지 마라. 신중한 지혜를 통해, 내가 너희의 회복에 있어서 너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 2020년 4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은 너희가 안정적으로 의로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이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에 있어 너희의 결정은 의로움을 반영할 것이다. 내 계명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또한 너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또 너희가 순간 순간 결정을 내릴 때도 너희를 인도한다.”

“요즘 시대에 엄청난 혼란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내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계와 생명 그 자체에 관해서까지도 나쁘거나 심지어 사악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다. 영혼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인기 있는 대중 매체에 의해 잘못 인도되고 있다. 사회는 내 계명의 기준에 따라 다스려져야만 한다.”

“이 선교사업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의 수용과 죄의 대중화의 물결을 저지하는 것을 돕는 수단이다. 내 계명이 너희를 인도하는, 안정적인 의로움의 길을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요한 2:3-6):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 2020년 4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유례 없는 시간에 가장 좋은 힘의 원천은 사재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다. 기도는 천상의 개입과 성령의 영감을 불러들인다. 기도는 너희가 불가능한 일을 바꾸거나 이루려고 애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뢰 가득한 내말씀 안에서 나아가도록 너희를 인도한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영혼들은 많은 필요들에 관해서 은총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은총은 (너희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 흔히 은총이란 현 순간이 펼쳐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인 경우가 많다. 너희가 먼저 나를 저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 너희의 걱정을 나에게 털어놓아라. 나는 너희 말을 듣고 있으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도록 도와줄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이로 인한 모든 시련들의 축수는 신뢰에 대한 시험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3:20-21):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세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2020년 4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성령이 너희 마음에 영감을 주거나 너희의 필요에서 너희를 위로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격리란 없다. 너희를 움아매는 모든 짐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해방시켜라. 너희 자신을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여라. 바로 이런 자세가 너희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너희의 참된 자유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란 너희가 (자신을) 나의 신성한 뜻에 일치시켜 너희의 뜻(의지)을 나의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바이러스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일치하는 것은 모두 너희의 갈망에 달렸다. 너희의 영은 결코 격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을 열어라. 나에게 일치하고 또 너희에 대한 나의 뜻에도 일치할 수 있도록 너희의 영을 자유롭게 하여라.”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은 언제나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2020년 4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격리 조치는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을 크게 앓아가고 있다. 그러나 영혼들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깨닫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쪽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오류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회의 법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내 계명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내 계명을 타협할 때,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이 권리는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죄를 지지하며 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4:6):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을 알고 또 사람을 속이는 영을 압니다.

■ 2020년 4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방주에 모여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렵듯이 나마 땅이 보이는지를 살피고 있었을 때 그들이 지녀야만 했던 인내심을 한 번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에서 그들만 따로 구해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가 정한 때가 나타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내 자녀들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서 너희도 인내해야만 한다. 너희 또한 격리 조치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감염되지 않도록 지시대로 따르며 조심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그 목적이 있다. 나는 너희를 더 깊은 순종과 신뢰에 이끌고 있다. 또한 나는 너희가 여러가지 기회와 방식을 통해 너희에게 드러나는 나의 ‘베푸는 은혜’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인내에 관한 가르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너희가 예배 장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너희는 개인적으로 너희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나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대단히 큰 인내의 힘을 주고 싶다. 이 내적 힘을 얻기 위해 나에게 의지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23:1-6):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 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

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 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태아목주 (5단)



확대된 목주알



짧은 태아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 (5단): \$29.95 짧은 태아목주: \$14.95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오후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 1/2" x 10 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Forever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

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웹사이트: <http://www.ho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ovekorean.com (웹사이트)